◇ 나의 體驗 ◇

英國에서 보낸 1年

徐 楨 哲
(韓國外國語大 敎授)

Ⅰ.

필자가 국비해외파견교수제도의 혜택을 받고 영국으로 떠난 것은 1981년 9월. 영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동료, 친지들은 "왜 영국으로 가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영국으로 가서는 안될 이유가 없으니 가는 것이 아니겠읍니까?"라고 대답은 했지만 나 자신도 그 대답이 어떤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 말 밖에는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사실 불어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불란서나 스위스, 벨지움, 캐나다 아니 아프리카 쯤으로 간다고해야 이해하기 쉬울텐데 영국에 간다고하니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영국에 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영국대학에서의 불어와 불문학에 대한 연구방법과 교수법에 대해 알고 싶었고, 불어를 제외하고는 영어 밖에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친근한 불란서보다는 불란서의 〈가깝고도 먼 나라〉인 영국을 택했던 것이다.

문제는 영국에서 어느 대학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마땅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어느덧 5월에 들어서야 영국문화원에 가서 영국대학 일람을 찾아보고 우선 런던대학과 엑시터(Exeter)대학, 그리고 옥스포드대학으로 좁혔으나, 옥스포드는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방문교수의 T.O.는 없고 초청장은 보내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정중한 답장이 왔고, 런던대학에서도 비슷한 편지가 왔다. 그래도 "옥스포드에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 말경에 엑시터대학에서 대학안내물들과 함께 편지가 왔다. 나는 상기대학의 불문과 주임 Fox 박사에게 편지를 했는데 답장은 언어연구소 소장인 Hartmann 박사에게서 왔다. 내용인즉 불어학교수직은 불문과 소속이 아니라 언어연구소 소속이고 상기 자리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언어연구소에서는 客員敎授 임명을 위한 요청을 대학평의위원회에 해놓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봉급은 본인 요청대로 지불되진 않지만, 특강에 대한 강사료를 지불하고 대학의 독신자교수 아파트를 교섭하여 주겠다는 말도 들어 있었다. 사실상 나로서는 대우문제보다도 부담없이 그곳의 대학분위기 속에서 원하는 공부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스토리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Ⅱ.

대학을 정하고나서 출발하기 전까지 틈틈이

영국에 관한 책들도 읽어보고 영국의 서남부지방의 역사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여권과 비자를 받은 후, 81년 9월초 엑시터로 갔다. 역시 느꼈던대로 그쪽에서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오는데 대한 준비를 해 두었다. 10월 10일 경에야 개학이 되기 때문에 일부교수와 직원 밖에는 출근하지 않는데도 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엑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퀸스빌딩 남향에 연구실이 배정되어 벌써 내 명찰이 달려 있었고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주는데에서 일종의 부담감마저 느꼈다.

도착 이틀후에 언어연구소 소장인 Hartmann 박사와 만나게 되었다. 서로의 소개와 관심분야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은 다음 서로 궁금한 것을 묻게 되었다. 그쪽에서는 어째서 내가 엑시터를 택하였는지 하는 것이 궁금하였고 나로서는 내가 불문과에 연구교수로 신청을 하였는데 어째서 언어학과의 기능을 맡고 있는 언어연구소에서 객원교수로 임명하였느냐고 물었다.

본래 엑시터대학은 응용언어학분야에서는 영국에서도 손꼽는 편이라 그쪽에서는 내가 그런 점을 알고 찾아온 줄로 생각했고, 나는 그쪽에서 나를 받은 것이 신청하는 학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한마디로 나를 자기들 연구소에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무엇인가 다른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Hartmann 박사가 나에게 강의는 어떤 과목을 희망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나로서는 강의에 대한 준비는 생각지도 않았고 영어도 서툴고하니 가르치는 쪽보다는 연구쪽에 관심이 더 많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양해가 된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우선 매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가 커피타임이고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가 티타임이라서 그 시간을 이용하여 자주 만나자고만 하고 헤어졌다.

그 다음날부터 적어도 커피타임 만은 매일처럼 교수휴게실에 나갔다. 헌데 전날의 대화도 잊은 듯이 Hartmann 박사는 나에게 시치미를 떼고 강의시간표는 거의 짜져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으니 강의를 좀 맡아달라는 것이다. 그때 얼핏 객원교수의 의무가 생각이 났다. 결코 연구원의 지위가 아닌 교수의 의무가….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매를 맞겠노라고 자청하고 나섰다. 불어학강좌가 있으면 맡겠고, 그 나머지는 아직도 교수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강좌가 있으면 맡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현재 M.A. 과정에서는 불어학 전공학생이 없어서 불어학이 이번 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면하게 되었고, 나머지 교수가 확정되지 않은 강의는 불어 회화시간이라고 하기에 그것은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강의이니까 되도록이면 그전에 그 과목을 가르치던 분에게 하도록 하고 그러고도 남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맡겠다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데 영국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3학기 제도여서 제 2 학기, 3학기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우선 요청받은 것은 언어연구소의 「언어의 표준화」에 대한 특강씨리즈 중에서 한국어의 문제를 맡아달라고 하는 점과, 2학기에는 학부강의 중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언어의 기술에 대한 강좌가 있는데 한국어의 음운론을 맡아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는 참고서적이 없어서 지급으로 서울에 부탁하여 우선 필요한 기본서적을 토대로 계획서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시에 연구계획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환언하면 나 자신의 연구를 뒤로 미루고 강의준비를 우선적으로 해야했다.

Ⅲ.

숙소인 버크스 홀은 대학에서 약 10분거리의 산 아랫쪽에 있다. 불과 얼마 안되는 거리지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1년 내내 매일 아침 8시반에 숙소를 출발, 대학에 왔다가 12시가 되면 점심식사하러 나갔다 오고 저녁 6시가 되면 귀가. 매번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자연속에서의 황홀감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매일처럼 그 길을 두번씩 오르내리면서 한달쯤 되자 개학이 되었다. 개학이 되면서 여러가지 파아티가 만발하였다. 우선 언어연구소 교수파아티, 그리고 교수와 학생이 교외의 펍(Pub)

이라고 부르는 선술집을 빌려 밤 늦도록 맥주를 마시면서 영국식 보올링을 하고 이야기 꽃을 피운다. 그러고 나면 기숙사는 기숙사대로 학생과 교수가 정장을 하고 참석하는 디너 파아티를 열고, 또 신임교수 파아티에다가 대학의 정교수들만으로 구성된 교수클럽 디너 등등.

그러나 한가지 유의해야 할 일은 파아티의 성격이 먹고 마시는 위주의 파아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나 불란서에서는 사람을 초대한다고 하면 절대로 서운하지 않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상례인데 영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것은 영국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 파아티=잔치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착오가 있는 것이다. 저녁식사 초청은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다. 가령 외국에서 교환교수가 자기 과(科)에 오면 과에서 공식적인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여 그것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는 점이 상례이다.

정교수클럽의 경우에는 각자가 경비를 자담하는데 매번 10파운드 정도를 부담하였다. 그런데 처음 모임에서 좀 의외의 일이 생겼다. 나는 생각없이 참석하고 보니 모임에 참석한 교수들이 한결같이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들. 그분들도 놀라고 나도 잘못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대학에는 450여명의 전임교수가 있는데 정교수는 20명 미만. 모두 은퇴를 얼마 앞둔 분들이다. 그리고 정교수의 비중은 대학사회에서 막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자연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 나는 본의 아니게도 노교수들과 함께 어울려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분들의 학문하는 태도며 인생관에 대해 많은 시사를 받았던 점도 역시 가장 인상깊은 일 중의 하나였다.

내가 또 한차례 당황한 초대는 신임교수 환영 파아티에서였다. 총장 직무대리를 하는 부총장 Kay 박사를 비롯하여 모든 대학 간부들 20여명이 리본과 명찰을 달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연구소 소장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 기다리는 사람만 많고 초대받은 사람은 거의 눈에 뜨이질 않았다. 혹시 우리가 너무 일찍 온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날의 신임교수는 모두 4명에 불과했다. 분위기가 정중하고도 엄숙한 가운데 Hartmann 박사도 신임교수가 너무 적은데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부총장 Kay 박사는 대학의 간부진들에게 일일이 "한국에서 오신 저명한 학자"라고 소개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모두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서로 질문을 하였는데 본의 아니게 그날 저녁의 주빈격이 된 나는 그 다음 날에야 그 파아티의 성격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81년부터 영국의 대학들은 감축의 회오리바람이 불어왔다. 정부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의 정원을 25%로 삭감하여 예산을 영달하고 있어서 신임교수 채용은 생각도 못하고 현 교수인원을 강제적으로 감원하여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다. 간부들은 매일처럼 감원의 기준에 대해 논의하기에 정신이 없는 형편이지만 매년 있는 행사인 신임교수 파아티를 열지 않는다면 그나마 아예 신임교수가 전연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설사 한명이 있더라도 신임교수 파아티를 공고하고 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러한 정황아래서 내가 주빈격이 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기회를 통하여 영국 대학의 고민의 단면을 보게 된 것이다.

Ⅳ.

강의가 시작되면서 대학 캠퍼스가 한층 더 활기를 띠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영국의 경우, 개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전교수들이 까운을 입고 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첫 개강에는 교수가 까운을 입고 강의를 한다. 오래 지속되고 보면 의식(儀式)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첫 강의에서의 까운 착복은 강의를 통한 학생과 교수의 만남이 진지한 학구적 만남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무의미한 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아울러 불문과와 언어학과의 몇몇 강의에 참석해 보았다. 영국 대학에서는 일반 강의에도 동료교수들이 참석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예컨대 생성문법에 대한 강의에는

언어학과와 영문학과 교수 몇몇이 참석하였고 학생들과 강의담당교수의 논쟁이 시작되면 교수는 그 강의에 참석한 동료교수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또 동료교수의 강의를 청강하는 것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강의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 강의가 상대방의 강의와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 상대방 교수와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각 과의 강의과목이나 방법에는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물론 컴퓨터에 대한 비중이 날로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문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생성문법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그에 대한 강좌수를 늘려달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는 없다. 그저 학부과정 2학년에서 2학기에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에 한 강좌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인문계통의 강의에서는 중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불문과의 경우 중세와 16세기의 비중은 오히려 불란서대학에서 보다도 못지 않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어리둥절함을 느낀다. 학생들의 불만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영국 대학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학은 실용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이 사회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영국에는 대학이면서 폴리테크닉이라는 이름의 대학이 도처에 있어서 그곳에서는 학문보다는 실용성을 위주로 한 교육을 시킨다. 불어불문학도 런던의 폴리테크닉에서는 실제 사용되는 현대불어, 불문학 위주로 교수되고 있고 기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도 마찬가지 원칙에서 교육되고 있다.

또 한가지 영국에는 몇몇 실험대학이 있어서 외국어의 경우, 예컨대 다럼대학에서는 현대어 위주의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는 본래의 전통에 충실한 고전 위주,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 대학의 또 한가지 특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외국인 교수에 대한 문호가 비교적 열려있다. 물론 현재 영국의 대학 형편상 외국인이 전임교수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외국인 교수의 강의나 특강은 되도록 많이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外大의 통역대학원과 영국 통역대학원과의 협력문제로 그 방면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센츄럴, 런던, 폴리테크닉의 외국어대학 스미스 학장에게 면담요청을 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대뜸 "자기대학의 4학년과 석사과정 불어전공 학생들을 위해 불어학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나로서는 영어도 더듬는 형편에 강의 성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원하느냐고 했더니 자기 대학의 성격이 실용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론위주의 강의면 되고 불어학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주면 外大와의 협력요청을 무조건 행정적으로 받겠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었다. 물론 크게 당황한 나머지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해 1학기는 이미 시작했으니 다음 학기에나 가능하고 또한가지는 내가 이미 엑스터대학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곳의 과장과 상의해 보아야한다고 하고나서 엑시터에 와서 상의를 하였더니 의외로 Hartmann 박사는 부정적이었다. 원한다면 어느 대학이고 강의를 얻어줄 수 있는데 왜 하필 런던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통근을 하려고 하느냐 등등의 이유를 부치는데 결국은 대학이 아닌 폴리테크닉을 근본적으로 한 차원 낮은 대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졌다. 때문에 2학기에는 부담이 많아서 강의는 곤란하고 특강은 가능하다는 편지를 써보냈더니 그쪽에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날자를 정해달라고 해서 3월 중순에 하기로 하였다.

V.

2학기가 되면서 강의, 특강 등등 때문에 바쁘게 지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나의 강의내용을 통하여 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학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특강은 모두 녹음이 되어 보존되며 연재 특강은 연사들의 수준을

비교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연재특강의 테마인 〈한국어의 표준화〉 문제는 필자가 별로 관심을 둔 테마가 아니었으나 그런 저런 구실이 강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초점은 한 나라의 언어란 표준화의 길과 함께 비표준화의 길을 가는 것이고, 표준화라는 것이 바람직한 이상이긴 하지만 항상 사회라고 하는 변수의 작용으로 오히려 비표준화의 현상이 더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언어현상이야말로 어느 다른 현상 이상으로 어떤 틀 속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삼고 한국에서 20년을 단위로 볼 때 지방인구의 서울이입이 표준말에 영향을 끼친 점도 있지만 사회구조가 산업화하면서 상과 하, 남과 여를 구별하기 위한 어미체계와 호칭체계가 바뀌어가고 있고, 한마디로 존대법은 서서히 從的인 계층 의미기준에서 橫的인 친, 소, 간격의미 기준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 맞추어 놓았다.

대충 준비를 하면서도 나의 영어문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게 하였다. 이런 저런 강의 준비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公的인 일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고 보니 그나마 영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마저 줄고, 심지어는 T.V도 뉴스만 간단히 보고 다른 프로는 못 볼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저녁식사후 방안에 들어서면서는 라디오의 다이얼을 B.B.C에 맞춰놓고 공부를 하면서도 틀어놓았고,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밤새도록 켜놓고 자는 습관을 들였다.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까지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B.B.C 방송의 엑센트를 나도 모르게 익혀서 보다 자연스런 영어엑센트를 익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내방은 B.B.C 엑센트라는 증기로 자욱한 〈소리의 사우나탕〉이라고나 할까! 나는 이런식의 교육방법을 "무의식속으로의 엑센트 삼투식 자가학습방법"이라고 이름지어 보았다. 물론 그런 방식의 학습방법을 나만이 처음 고안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외국인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히 유효한 것 같다. 그래서 별 부담없이 특강들을 치를 수 있었으니…….

또 한가지 걱정은 얼마나 많은 청중이 와 주느냐 하는 점이었다. 물론 한국어에 대한 특강이 영국에 있어서 영어의 표준화, 또는 미국에서의 언어표준화의 문제만큼 많은 청중을 동원할 수는 없으나 다른 특강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언어연구소에서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점이 걱정이 되었다. 그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특강실로 들어서는데 언어학과 교수는 물론 모두 참석했지만, 석사, 박사과정 이수생들과 학부에서 한국어음운론을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특히 불문과를 비롯한 인문, 사회학과들의 교수들이 상당수 참석하였다.

특강의 효과는 그 다음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을 하였더니 언어연구소의 비서가 자기는 나의 특강이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노라고 하면서 방금 불문과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었는데 특강관계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날 아침 커피브레이크에 나갔더니 특강에 참석했던 불문과 교수들이 어제의 이야기로 한창이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제까지는 당신이 한국의 교수라고만 알고 있었고 한국의 대학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동등한 동료로 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멧시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불문과 과장을 겸하고 있는 문리대학장 폭스교수가 당신은 비록언어연구소 소속이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것이고 사실은 불문과 교수이기 때문에 불문과를 위해서도 무엇을 좀 해주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부탁이 반가우면서도 나는 더이상의 부담을 원치 않고 보다 자유스럽게 자료도 찾아보고 여행도 하고 싶어서 사실 지금 맡아있는 일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좀 힘들 것 같다고 발뺌을 하려고 했더니 몽테뉴연구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카베른 박사가 "여보시요, 지금 우리 영국대학은 유사이래로 없었던 불행한 시기—대학의 감축을 의미함—를 맞아 모두 우울한데 당신이 불문과를 위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소?"하고 뼈있는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말에는 더이상 다른 구실을 핑계댈 수 없어서 정 그렇다면 내가 런던에 가서 할 불어학 특강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더니 다른 불문과 교수들과 상의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영국 대학의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여야 할 것 같다. 그날 아침 강의가 있는 교수를 제외하고는 대개 교수휴게실의 커피 브레이크에 나와서 환담을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후에도 티타임이 있지만 보다 적은 수의 교수가 참석한다. 커피 브레이크는 10펜스(약 120원)짜리 커피 한잔을 놓고 사교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한 科나 大學의 행정적인 이야기도 나누는 비공식회의 성격도 띠게 되는데 웬만한 토론은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문제, 취업추천문제, 인사문제 등등도 이 시간에 많이 논의된다. 또 한가지는 교수 상호간의 관심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학기초에는 각자의 연구와 강의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많고, 학년말에는 학생평가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교환한다.

카메른 박사가 며칠 후 만나자고 하여 갔더니 불문과에서는 1년 6회정도 교수들만 참가하는 교수 세미나가 있는데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역시 어학에는 교수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되도록 열다섯명에 달하는 불문과 교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데에 마련 좋겠다고 하면서 문학사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뤄주든가 그것이 어려우면 한국에서의 불문학 교육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기에 「불문학사의 접근방법」을 제목으로 하겠는데 시기는 내가 런던으로 가기 전인 3월 초가 좋겠다고 했다.

발표일, 언어연구소 교수들도 참석하고 싶다고 알려왔다. 세미나실에 가 보니 불문과 교수 전원과 불문과 교수로서 정년퇴직한 니콜라우스 박사를 비롯한 원로교수들도 보였다.

시간적인 계기의 관점에서 문화를 고찰할 경우 거기에는 전통의 계승과 단절 현상이 함께 일어나며 흔히 문화를 흥성, 쇠퇴의 개념으로 보지만 그보다는 어느 특정한 성격의 현상만 수용하는 좁은 문화와 폭넓은 문화의 관점에 살펴야하며, 또 과거의 문화는 현재의 척도로서만 재기 때문에 100년 전에 보던 중세와 오늘날 보는 중세는 사실상 하나이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즉 가치평가의 상대성을 주로 설명하였고, 특히 어떤 사조가 새로 등장할 때에는 이미 그 속에 그 사조가 보다 강력한 사조에 의하여 밀려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였다. 음양오행까지 동원해서 발표한 것 때문인지 2시간 이상을 끌었는데도 아무 말없이 진지하게 듣고 토론까지 벌였다. 그 발표가 있은 이후로 불문과 교수들과는 한층 더 가까와진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대할때도 보다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유있게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맡았던 것이 잘 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런던의 폴리테크닉에 가서의 특강은 M.A. 코스 학생들과 불어담당 교수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스미스 학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약15명의 불어담당 교수들이 전원 참석했었다. 역시 예정시간을 훨씬 초과하였는데도 참석자들이 자리를 지켜주었다.

발표후 나는 스미스 학장에게 물어봐야할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었다. 어째서 처음 만나자마자 나에게 강의 부탁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만나기 어려운 한국의 교수를 만났으니 오히려 그 요청이 당연한 요청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마지막 3학기에는 강의는 별로 없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평가와 학년을 마무리하는 기간으로서 밀린 일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불문과에서는 자기들이 출판할 것이 있으면 맡겨달라고 당부하였고, 언어연구소 또한 그런 부탁을 하였다.

돌이켜보면 정신없이 빨리 지나간 1년이어서 어리둥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의 영국생활 하나 하나가 보다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할까.

생각해 보면 영국의 교수들은 정중하고 친절한 가운데 자기들을 방문한 코리언 교수에게 있는 것을 모두 보여달라고 한 셈이고 나로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그들과 가까와졌고 또 한국에 대해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준 것 같아 내심 흐뭇한 심정이다. *